

혼수보다 건강 체크 중요

## 예비부부 건강 공합

결혼시즌인 요즘 결혼식장을 구하기 힘들만큼 예비부부들로 넘쳐난다. 예단이나 혼수 살림집 마련 등 결혼 준비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지만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두 사람이 백년해로 할 수 있는 건강을 점검하는 일이다.

### 중요한 혼수품, 건강진단서

요즘 젊은 예비부부들은 결혼 전에 건강진단서를 중요한 혼수품으로 교환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배우자나 앞으로 태어날 2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전염성 질환이나 정신병, 유전성 질환 등 가족이나 2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없는가를 확인하는 질병검사는 필수적이다. 또한 요즘은 치아 스케일링과 코골이 수술 등도 결혼 전 건강진단 품목에 낀다.

결혼 전 기본검사로는 혈액과 소변검사, 간염 및 성병 검사, 혈청검사, 흉부 엑스선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풍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 여성은 냉이 있거나 월경이 불규칙하면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건강, 검진을 통해 미리미리 체크

혈액검사를 통해 혈액 이상 유무를 판별하는 것이 중

요하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혈액형을 확인해서 아이를 분만할 때 수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

에이비오(ABO) 혈액형은 서로 검사를 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좋는데 특히 알에이치(Rh) 혈액형이 음성인 여성이 알에이치 양성의 혈액형을 가진 남성과 결혼해 아기를 낳을 경우 신생아에게 용혈성 빈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해서 예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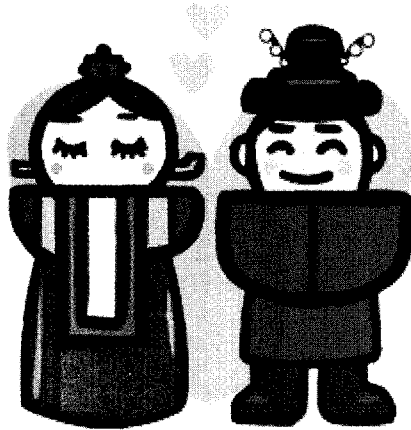
또 여성이 방광염이 있을 경우에는 임신 때 신장염이 생기기 쉬우며 당뇨병이 있을 때는 기형아를 낳을 위험이 있으므로 미리 소변검사로 확인한 뒤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간염검사도 매우 중요한데 전국민의 5% 정도가 보균자인 B형 간염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는 태아에게 수직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B형 간염 항원·항체검사에서 형성되지 않았다면 결혼 전에 예방접종을 해줘야 하며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 》 예비부부에게 꼭 필요한 건강검진 <<

- ✦ **질병력 검사** : 가족 중 유전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았던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미리 예방하도록 한다.
- ✦ **빈혈, 콜레스테롤, 혈당, 요단백 검사** :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검사.
- ✦ **B형간염** : 배우자뿐만 아니라 태아에게 수직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 필요.
- ✦ **풍진, 파상풍 예방접종** : 신부에게 중요한 접종. 임신시 풍진에 걸릴 경우 기형아 출산 위험.
- ✦ **성병 검사** : 혼전 남성과 여성의 성병 검사는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
- ✦ **결혼상담 및 교육검사** : 환경 변화나 부담감이 몸의 저항력을 떨어뜨려 질병에 쉽게 노출되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도 함께 의논한다.



성병은 감염된 후 잠복기가 길고 자각증세가 별로 없어 자신도 모른 채 성병에 걸려 있는 경우가 있다. 여성이 성병에 감염되면 불임과 유산, 조산, 자궁외임신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받고 치료해야 한다.

여성은 또 초음파검사를 받아서 자궁에 혹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자궁근종일 때는 불임이나 유산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만일 배에 혹이 만져지거나 생리때 복통이 심하면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풍진 예방접종은 특히 여성들에게 필수적인데 임신을 했을 때 풍진에 걸리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다. 예방접종을 맞은 후에도 3개월 정도는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임하는 것이 좋다.

### 대화를 통해 사랑 확인하는 것도 중요

특히, 느지막에 결혼한 커플은 의사와 건강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신부의 나이가 들수록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흉부 엑스선 검사를 받아서 폐결핵 등의 폐질환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대장 내시경검사를 통

해 대장질환이나 치질을 확인해 치료하는 것이 좋다.

한편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한없이 기쁘지만 할 것 같지만 뜻밖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랑에 대한 불확신, 책임감과 부담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심한 경우 결혼 전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져서 서로에게 자신의 현재 감정 상태를 솔직히 털어놓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